

가정예배 안내서

10

1994

충현의 만나

예레미야 ·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기도제목

1.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이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7. 민족 복음화 및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8. 94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가정예배 안내서

10

1994

충현의 만나

예레미야 ·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의 만나

1994년 10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요한복음 서론

예수님의 전기(傳記) 형태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헬라어 표제는 ‘요한에 의한’이며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이란 말은 후대에 붙여졌다. 이 복음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13:23, 19:26, 20:2, 21:7, 20)로 불려진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요한은 공관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볼 때 요한복음의 저술연대는 공관복음의 저술이 완성된 AD 70년 이후 AD 100년 이전으로 좁힐 수 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②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럼으로써 ③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일명 독수리복음, 영적 복음이라 불려지기도 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sign)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일곱번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다(2:11, 4:54, 5:2-9, 6:14, 9:1-7, 11:1-44).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①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1:1-18) ② 하나님 아들의 출현(1:19~4:54) ③ 하나님 아들에 대한 반대(5:1~12:50) ④ 하나님 아들의 제자 양육(13:1~17:26) ⑤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부활(18:1~21:25)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 구원하리니 …… 』(46:27, 28)

본문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애굽 군대의 공포의 분위기와 전쟁터로부터의 도주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을 의지한 사람들의 참상을 묘사하면서 한편으로 바벨론 포로들이 언약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애굽 침공과 애굽의 패주를 진술하고 있는 전반부(13-19절)와 ② 애굽의 완전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후반부(20-28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배도한 유다를 징계하시고, 더 나아가 유다의 동맹국이었던 애굽까지 심판하실지라도 계획하신 시점에 이르게 되면 언약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써 애굽에 대한 심판을 요약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전 단락(1-12절)과는 달리 심판의 양상과 결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지없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주권의 현실성을 묘사한 것으로서, 27, 28절에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회복도 역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가지 상황과 수단을 통하여 곤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성도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 기도 /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24:8)

주인이신 여호와를 영광의 왕으로 높이는 이 시는 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전반부(1, 2절)와 ② 성전 예배 참여자의 자격과 축복에 대하여 언급하는 중반부(3-6절), 그리고 ③ 질문과 응답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강조하는 후반부(7-1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는 새로 마련된 성소에 법궤를 모시는(3-6절) 감격과 기쁨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를 저술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오벵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기고자 결단한 시기로 추정됩니다(삼하 6:12-19).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이 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성도들 중에 임재하실 때에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궤가 성막으로 모셔지는 장면은 고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의 모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시는 분류상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땅위의 성막에 거처를 정하심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영광의 높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8절).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의 왕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 기도 /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찬양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신령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34:18)

본문은 열방에 관한 예언(46-51장)들 중 두 번째 부분으로서 블레셋이 북방 민족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되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다윗 왕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서서히 세력을 만회하기 시작하여 유다에게 매우 위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삼하 5:17-25; 대하 21:16, 17).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블레셋을 심판하심으로써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① 역사적 시기 및 상황(1절), ② 바벨론 침입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2, 3절), ③ 심판의 목적(4, 5절), ④ 블레셋의 철저한 멸망(6, 7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궁극적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역사선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악인의 강인함과 능력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높이시고 죄를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하여 세상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요 16:33).

▶ 기도 /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이 거룩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여호와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48:10)

본문은 모압의 전지역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 황폐케 될 것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읍들이 적에게 점령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소유물들을 탈취당하게 되고, 그들이 믿던 우상도 훼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을 칠지라도 결국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참혹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와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처럼 그들이 우상 그모스(왕상11:7)와 부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7절). 다른 하나는 여호와와 일을 태만히 하였기 때문입니다(10절).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태만함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여호와와 일에 태만함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고 산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축복된 삶을 삽시다.

▶ 기도 / 여호와와 일을 태만히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94 예수사랑 큰잔치 때 차고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48:35)

나라든 개인이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파멸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와 힘만 의지하는 자는 그것으로 망하고 맙니다.

본문에서는 심판당하기 이전의 모압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지금까지 비교적 평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모압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붓지 않고 찌꺼기 위에 남아 있는 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너무 지나치게 자만했던 모압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압은 마치 다른 그릇에 붓지 않은 포도주처럼 포로의 가혹한 실재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들의 태도를 조금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니다. 즉 모압은 이스라엘이 베엘을 믿었을 때 수치를 당한 것처럼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압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전투에 용감했던 용사들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멸을 막아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 못가서 살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 안정을 기도했던 모압은 완전한 패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와 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통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다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복음증거자의 삶이 됩시다.

▶ 기도 / 겸손히 주를 섬기며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양떼에 관심을 두며 목자장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48:47)

본문에서는 모압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 겪게 될 참담한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헤스본의 옛 노래를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모압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나 공공기관에서나 개인의 집에서도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레미야는 모압이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으로 인해 결국은 심각한 수치를 당하고 많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극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언젠가 모압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신4:30, 사11:11).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은 비록 국가로서의 존재를 잃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인하여 장차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노는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깨달아 아는 영안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됩시다.

▶ 기도 /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살아 계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소서. 신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본이 되며 섬김에 앞장서는 모든 당회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3:4)

구약에서 하나님은 꿈, 환상,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 가시떨기의 불꽃, 세미한 음성, 사람의 모습 등 여러 방법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만나 시곤 했습니다. 이 만남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 다. 그 느낌의 실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 죄인이 절대적 거룩자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생의 의미와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남의 경험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인지요. 그들의 생각, 삶의 양식, 생의 목표 모든 것이 그 만남을 통하여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많은 병자들을, 인류와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침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과 의 만남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듯이 우리가 온 삶을 나누며 섬기기로 작정한 그 분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만남의 감격으로 그들을 예수사랑 큰잔치와 전도집회에 초청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이 임미누엘로 나와 나의 삶 전부에 함께 하여주옵소서. 이번 예수 사랑 큰잔치 기간이 놀라운 충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보내는 초청장을 보는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소서.

『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 』(49:4)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살지 못하고 서로 의지해야만 힘을 얻을 수 있고 서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간적으로는 힘이 될 수 있으나 영원한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진정으로 인간에게 의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본문에서는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은 재물을 의지하였고 에돔은 철벽과 같은 성(국방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큰 힘이 되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온전한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궁한 혜택을 베푸시지만 당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던 바벨탑은 무너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국방력을 의지하는 암몬과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 독수리 보금자리같이 완벽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16절). 인간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주여, 저에게 주신 재산, 자식, 배경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항상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계획한 모든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25:10)

세상에서 보기 힘든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의해서 짓눌리는 일을 당하는 것과 정직한 자가 거짓된 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칫 약한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그런 압제를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하는 동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불의한 자를 심판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혹시 자신이 불의한 자에 속하지 않는지를 뒤돌아 보면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남의 불의를 보면서 공의를 촉구하는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촉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모든 교구일꾼들이 성령충만하여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49:39)

결과만 중시하다가 원인과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모두 협력하여 하나님께 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 왔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으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마지막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구속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다메섹과 하솔과 엘람을 모두 제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끝날에 이르러는 모든 포로의 길에서 놓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게 하지만 그로 인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 여정 속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은 괴로운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것을 인연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속히 자신을 돌아보고 끝날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결과만 중시하여 마음에 없는 일을 하지 말게 하시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도 주장하여 주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50:4)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열국을 정벌하던 바벨론이 지도자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국의 포로가 되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죄값 때문이었습니다(14-15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교만은 역시 패망의 선봉임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된 목자들을 좇아 곁길로 감으로 길 잃은 양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6절). 눈에 보기에 좋다고 뒤따라 가는 것은 소경의 인도를 따라 벼랑을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도자는 남을 학대하거나 속이지 말고 비판하거나 긍휼행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 기도 /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참된 목자장이신 예수님만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사랑 큰잔치 태신자 전도집회를 축복하소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 (50:19)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지만 어디에 다 터전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황폐한 상태였으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되며 동산, 포도원의 뜻을 가진 산으로 나무가 많고 과수도 많은 기름진 땅인 갈멜과 부드러운 땅이라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넓고 비옥한 바산 땅에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19절). 그 곳에서 마음이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은 완벽한 것이고 더 나아가 영적인 축복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20절). 그들은 4절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렸기에 이러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다른 필요한 것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마 6:33).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을 받들고 감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었습니까? 날마다 사랑과 결실이 넘치는 가정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품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어 참 행복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기도 /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항상 푸른 잎과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사랑 큰잔치 태신자 전도집회 둘째날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50:34)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은 그 파괴력이 가공할 만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강하다고 날뛰었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강한 손에 잡히니 바람 앞에 등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의 힘만 의지하고 사람들을 학대하였던 것이 그들의 멸망의 한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약4:6).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매우 냉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심이 아니라 온전히 성숙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의 배후에서 강하신 손으로 구속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들은 항상 즐겁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돌부리에 걸리어 넘어질 수도 있지만 강한 어머니의 손이 붙들어 주기에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누군가의 손을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손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세상의 군왕들도 그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시 37:23-24)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에서 우리를 꾸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기도 / 연약하여 넘어지기 잘하는 저를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주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과 예수사랑 큰잔치 태신자 전도집회 셋째날을 축복하소서.

『이는 우리 복음이 ……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1:5)

충현교회 주 찬 양 집사님께

만약 내가 교회에 다녀보고 싶고, 내가 예수를 정말 알고 싶고, 믿고 싶을 때가 있었다면 이런 때였습니다. 옆집의 유순해 보이는 그 여자, 혹은 그 남자가 말없이 내 집앞까지 끌어 주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웃으며 먼저 인사를 하는 불임성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이 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막상 무엇인가 하기는 망설일 때, 저금통을 들고 모여들어 그 모은 것을 그 나라로 보냈다는 교회를 볼 때입니다. 어깨에 무슨 문구를 써넣고 종이 쪽지를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지옥의 천벌로 위협해대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보다는 동네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다닌다는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너무도 멋진 광고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작지만 진실한 모습이 나를 감동케 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교회에 처음 출석한다면 어떨까요? 무척이나 서먹하고 이상하여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다녀야 하는 것이고, 생면부지의 많은 사람들 중에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는 것이며, 별로 실감도 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아무 느낌없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정말 따분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혹은 모르는 사람들이 괜스레 친한 척 다가와서 이런 저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저런 모임과 회의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추근댄다면, 정말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귀찮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하며 온유하여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는 어쩐지 냄새가 다르고, 풍기는 분위기가 사람이 마땅히 그랬으면 하고 평소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쩌면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말 잘하고 선전 잘하며 난 체하고 든체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접해 보지 못한 참 사람, 깨인 사람, 선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충현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그들이 나와 같은 때를 겪은 사람들이라면 내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본'임을 알고 있겠지요. 나는 정말 내가 본받을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본을 내가 본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아울러 알아 주시고 부디 인내로 나를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신자 김 초 행 올림

▶ 기도 / 우리 구역에 새신자를 주셔서 양육할 기회를 주시고 구역의 모든 지체들에게 양육할 성숙된 마음자세와 믿음을 주셔서 준비케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축복하시사 프랑크푸르트교회와 비스바덴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사랑 큰잔치 태신자 전도 집회 넷째날을 축복하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51:1)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문은 바벨론을 파괴시킬 자에 대한 내용(1-6), 바벨론의 멸망을 금잔의 파괴로 비유하고 있는 부분(7-10),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부분(11-14)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바벨론 심판의 주체에 대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곧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바람)’(1), ‘타국인’(2), ‘활을 당기는 자, 갑주를 갖추고 선 자’(3), ‘메대 왕들의 마음’(11) 등의 표현은 심판의 주체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구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 세력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계 14:8;18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심판으로서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속에서 공의를 드러내는 절대주권적인 심판을 세상 마지막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시적인 도구로 악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교만(50:29)은 결코 용서치 않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과 이 백성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과 예수사랑 큰잔치 태신자 전도집회 다섯째날을 축복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26:1)

이 시는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무죄성을 입증하고 위선자들의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단언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구원을 요구합니다. 전반부(1-5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자신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후반부(6-12절)에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쁨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의로운 길을 가는 성도의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부귀영화를 위하여 기름부음을 받은 왕을 배반할 정도로 간사한 자들(4)과 뇌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모사들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10). 압살롬을 추종하던 자들에 의해서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의 간악함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점에서 무죄함과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인정과 보답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진실은 나타내야 합니다. 자신의 성실함도 주장해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도 힘써 살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결신하게 하시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51:18)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은 엄위하십니다. 이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20-32). 그러나 본문은 바벨론 멸망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15-19).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조롱하는 가증스러운 범죄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 죄악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신 분이십니다(15). 그는 하늘의 구름과 바람과 비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바벨론은 이러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지혜있는 것 같으나 우준하게 되어(롬 1:23)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수치를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우상숭배로 인해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18).

우상 숭배의 죄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택하심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마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식도, 명예도, 물질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유대인 선교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성지연구소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을지라 미구에 추수 때가 ……』(51:33)

바벨론은 역사상에서 가장 강대한 대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합병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많은 민족 중에 유다가 끼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채찍이요 몽둥이였습니다. 유다는 이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회복된 은총을 입겠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추수 때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가 행한 수많은 범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징계와 채찍을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적극적인 의미로 신앙 안에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더 많은 은혜와 신앙의 부요함을 체험케 됩니다. 둘째로 아무리 강대하고 부요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을지라도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쓰임받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추수 때 쭉정이를 불살라 없애버리는 것처럼 역사상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서글픈 국가의 운명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사회, 국가는 궁극적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의의 병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기도 / 성도들이 세상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 오른다 하자 그 성을 ……」(51:53)

하나님은 바벨론이 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속국으로 하며 전 세계의 강대한 지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벨론은 끝없는 교만의 길을 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의 극치를 보여 줍니다. 넓은 성벽과 그 높은 문들은 수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을 위압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며, 끝없는 수렁에 있는 유다는 회복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위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니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없는 문화의 허무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부귀와 명예와 같은 것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날아가 버릴 지 모르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견고한 소망과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향락문화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중국 본토어 훈련과 광주, 심천 지역의 양육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 』(52:3)

모든 인생사와 역사의 사건들은 시종과 결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왕국인 유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시드기야 왕은 사슬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눈을 뻗히우고 옥에 갇혀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지나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이는 유다가 거둔 과실이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더우기 시드기야 왕은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역대 왕들의 전철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극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같은 죄악은 모든 백성으로 바벨론에 망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고통과 저주를 겪게 된다는 단순명료하지만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자, 불신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나라가 갑자기 완전히 멸망되는 고통을 겪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속국이 되면서 수 천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향을 했던 것입니다. 개인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저주를 물려주는 비통한 운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더 붙잡아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삿뿌로에서의 의료사역을 통해 일본인들의 마음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소서.

“..... 유순한 자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2:7)

태신자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등록하게 하였던 성도에게 오늘의 만나가 큰 도움을 줍니다. 태신자의 성별, 나이, 환경, 지위와 상관 없이 얼마나 귀엽고 대견하며 신기해보이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신앙적으로 아기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과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낳고 키우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의 많은 부분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하심입니다(창 3:15). 그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획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 복이 이웃으로 전해지며, 그들을 통하여 더 확산되어 마침내 모든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거나 짐스러워 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기뻐하면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의 마음이 짐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관심, 애착, 친절, 돌보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는 마침내 또 다른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성숙된 한 사람의 신앙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 기도 / 양육자로의 인내와 집념과 기술을 깨닫게 하셔서 양육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김형선·한영자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문서선교, 외향선교가 결실을 맺게 하소서.

『느부갓네살의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52:28)

바벨론 군대들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의 모든 기명들과 많은 금과 은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가 바벨론의 병사들에 의해 뽑혔습니다. 이 기둥이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유다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약탈당하였으니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이 유대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문 문지기와 장관과 왕의 시종자들과 서기관과 국민 60명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가자 바벨론 왕은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매워준 멍에를 매지 않고 배신했기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사름이 되었고 유다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은 제2차 포로 때 잡혀간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18세에 왕이 되어 석달 열흘 동안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37년 동안 감옥생활 후 석방되어 바벨론 왕의 후한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역사를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높고 존경받는 자라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불의한 생각과 우상숭배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항상 겸손하여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 기도 /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이기성·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가 현지 적응을 잘 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소서.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27:1)

다윗은 자신의 위기에 대한 탄식을 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실하게 믿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이 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다시피한 다윗은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대적을 눈 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여호와와 신앙을 선언하며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건디기 힘든 위기의 순간마다 먼저 과거 자신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여호와를 향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도움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위기가 눈 앞에 닥친 다급한 상황에서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고 현재의 구원까지 확신하면서 담담한 심정으로 간구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와의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자요 열정에 넘치는 시인으로서 또한 성군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 두려워 떨며 불안해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태산같이 큰 것이라도 그보다 몇 천배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다윗처럼 조금해 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여호와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게 하소서. 교은반 평신도선교사(케냐)의 팀선교사역을 할 때 협력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하시고 맞사이족의 선교를 도우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1:14)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충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아울러 성령의 풍성한 계시를 밝히 드러내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 방식에 익숙해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말씀 즉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주로 이성 혹은 만물의 질서를 주장하고 세상에 의의를 부여하는 능력 등 다분히 철학적 개념어로 사용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사람의 빛이 되시고 창조주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모든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놓아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였으며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함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하시고 오사카영광교회와의 협력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1:23)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백성들의 죄악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얼버무리지 않고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즉 방향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바람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산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 방향을 똑바로 잡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산당의 열심분자는 공산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아주 잘못된 것에 열심을 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숨어서 조용히 있지 아니했습니다.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가 조용히 하고 있으면 그는 자기의 일을 태만히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임금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계에 있어서 시침이나 분침이나 초침이 각각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할 때만이 그 시계는 시간을 바로 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평생에 할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 기도 / 주님,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달아 그것에 진주처럼 빛나게 하소서. 선교사역을 준비 중인 김영대 선교사 위에 함께 하시사 언어 훈련, 비자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소서.

『나dana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1:48)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안드레, 빌립을 부르시고서 나dana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dana엘을 환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나dana엘이 놀라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나dana엘의 외모도 알고 속도 알고 성품도 알고 습관도 알고 주머니 사정도 알고 고민도 알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정도 환히 아십니다. 나의 사정을 주님이 모르신다고 오해하지 맙시다. 성도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계시니 또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dana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신을 살펴보고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는 그의 개인 경건시간을 갖는 장소였습니다. 경건시간이 없는 성도의 삶은 메마르고 문제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경건의 시간이고 경건의 연습이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못보신다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 계신 주님께서 본문처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가정예배 중이라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매일의 경건 생활 훈련으로 저 하늘을 날고 계십니까?

▶ 기도 / 주님 가을을 맞이하여 말씀 읽는 일에 꼭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돕고 있는 모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성령충만함으로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 (2:5)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볼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적에서 시작하여 기적으로 마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생명의 기적이요 축복의 기적이요 기쁨을 주시는 기적입니다. 잔치집의 큰 실패를 성공과 기쁨으로 바꾸어준 구원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의 불못에서 천국의 생명강가로 인도해주신 기적의 구주이십니다. 이 기적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주시는 기적입니다.

결혼잔치집의 주인은 손님은 아직도 많은데 포도주가 없어서 너무도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산더미와 같이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만 이런 문제가 눈독듯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데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든 안되든 따지지 말고 그냥 믿고서 그대로 ‘예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100%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홍해와 같이 쌓여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저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주님! 말씀에 언행심사로 순종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1:12)

우리는 어떤 기정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이 대통령을 만나야만 할 일이 있다고 할 때 이웃집 누구를 만나러 가듯 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고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과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학생이라면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갈 수는 없습니다. 입시에 따르는 여러 과정을 거치고 대학이 제정한 수준의 실력을 구비하여 그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아니 적어도 죽음 뒤의 영생을 확인하며 하나님 존재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무엇을 정말 필요로 하고 원한다면 당신은 그 일에 관하여 이미 제정된 방법과 원리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대로 해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거룩한 자신에게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입장에, 영생을 맛보는 것에 불과하기 어렵도록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이 일이 영생과 천국을 얻는 일치고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영똥하고’ ‘너무 인간 이성과 논리에 어긋나서’ 웃어 넘겨 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그 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원의 법을 인정하고 영접하십시오.

▶ 기도 / 이번 모임을 통하여 우리 구역의 모든 지체들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새로운 확신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소서. 특히 새신자가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토록 인도주소서.

『……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2:16)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뜰 안에는 온갖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나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 환전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지, 편리를 위해 환전을 해주는 것은 명분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의 경건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편리함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내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성전’이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므로 예수님 자신이 곧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뜻도 있고, 참된 성전이란 건물이나 제사행위보다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산제사로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전으로 알고 항상 거룩함과 사랑이 넘치는 곳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28:9)

본문은 환난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환난은 항상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다는 뜻이며, ‘손을 들고’는 간절함을 뜻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 이하에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난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온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9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되시기 때문입니다(시 23편).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찬송과 기쁨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소서.

“.....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3:5)

본문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인 거듭남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절과 5절에 각각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중생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거듭남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돌아오는 11월에도 함께 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 3) 구역공과..... 인도자
- 4) 기 도 인도자
- 5)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4 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요 절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
니”(딤후 3:16)

성경은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면이 있는 책이다.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인가?

* 귀납적 성경 해석법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중에서 귀납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가지를 꼭 알아야 한다.

1. 귀납적 해석법의 첫단계는 성경에 대한 관찰이다.

관찰의 기본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 보는 것이다. 다음은 음은 문학의 형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성경에는 역사, 율법, 편지, 시, 예언, 묵시, 비유 등 다양한 문학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2. 귀납적 해석법의 두번째 단계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해석해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이단은 성경의 한 두 구절에 얽매어 전체를 1보지 못할 때 일어났다. 다음으로는 삶의 상황에서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용어란 시대마다 변하기 때문이다.

3. 귀납적 해석법의 세번째 단계는 적용이다.

적용은 가능한 적용, 실제적 적용, 개인적 적용을 해야 한다. 즉 말씀을 통하여 피해야 할 죄가 무엇이며,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변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

제 5 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무엇인가

· 요 절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2천년 전 역사 속에 오셔서 구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1. 하나님의 본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종교적 성품과 소질이 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속에 내재한다. 게다가 후천적으로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일반계시나 특별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를 논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에서 출발하고 있다.

3.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첫째,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땅에 보내주셨다고 한다(롬5:8).

셋째, 성경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라고 말한다.

4.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출3:14). 그의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주)이시다. 신약에서는 데오스(하나님), 혹은 퀴리오스(주님), 파테르(아버지)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둘째, 그분은 영이시다. 셋째, 역사를 자신의 주권 속에서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제 6 과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 요 절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 28:19)

삼위일체 교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뜻이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1.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

첫째, 세신이 있다는 삼신론적인 견해이다.

둘째, 한분 하나님이 세가지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나셨다고 보는 양태론이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으로 믿는 유니테리안(단일신론자)들이다.

2.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증거

구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우리 라고 말씀하셨다(창 1장). 그밖에도 여호와와 함께 주를 언급한 것이다(시110:1), 하나님과 더불어 아들을 말한 것이나(시2:7),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을 말한 것(사 48:16) 등은 하나님께서 삼위되심을 증명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30과 마태복음 28:19, 그리고 고린도후서 13:13에 언급하고 있다.

3. 삼위일체 교리의 의미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은 한분이시지만 그 위는 셋이란 말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뜻이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제 7 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 요 절 :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인간인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기원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1. 인간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론은 신앙적 견해이고 진화론은 과학적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불확실한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론은 수많은 증거를 가진 과학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당시부터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창조했고 모든 생물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2.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삼분설과 이분설이 있다.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2:7에 분명히 보여주듯이 두가지로 되어있다. 즉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이란 인간만이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이기도 하다. 이 영혼이 있기에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의 특징은 첫째, 영적 속성을 가지며, 둘째, 지성적 속성을 가지고, 셋째, 도덕적 속성을 가진다.

3. 영혼의 기원

영혼의 기원은 창조설이다. 즉 영혼이 어느 시간에 창조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4.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만물통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참지식을 말한다. 범죄한 후 인간은 네 가지를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거듭났을 때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MEMO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 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